

내년도 정부예산안 역대 최대

익산시,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 추가 확보 총력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익산시 국비 사업비가 역대 최대로 8천억원이 넘어섰다.

익산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된 8,180억원의 지난해 정부예산안 7,886억원보다 294억원이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 공모사업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규모를 고려할 때, 올해 국가예산 9,068억원을 넘겨 7년 연속 최고치 경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새 정부 긴급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 확보로 계속사업 예산을 삭감 없이 지켜내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

에서 의미가 크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신산업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는 △홀로그래프 핵심기술개발사업 48억원 △친환경 농·건설기계 기술지원 기반 구축 사업 20억원 △상용차용 대화면 다기능 홀로그래픽 HUD 서비스 실증사업 9억원 등이다.

정경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도 다수 확보됐다.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철거 및 생태복원사업 149억원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사업 77억원 △국립 익산 치유숲 조성 30억원 등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일지리아 연계한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

서수~평장 개설사업 294억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57억원 △제3교통안전체협교육센터 건립사업 20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 밖에도 500만 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150억원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사업 43억원 △세계유산탐방커뮤니티센터 30억원 △익산 나비유 성당 성지문화 체험관 건립 사업 14억원 등을 확보했다.

이러한 성과는 국비 확보를 위해 정현을 시장을 중심 체제로 지난해 8월부터 일찍이 신규사업을 중점 발굴하고 단계별로 준비한 데 것이다.

정 시장을 비롯해 시 공무원들은 전라북도도와 기획부처, 중앙 사업 부처를 수시 방문해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북부권 일대의 촘촘한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합열분소 운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어르신 눈높이 맞춘 프로그램 인기

익산시, '북부권 치매안심센터 분소' 인기

익산시가 북부권 일대의 촘촘한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합열분소 운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분소는 지난 7월 합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내에 개원해 농촌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부권 주민들의 치매검진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돌봄 교육 등 치매인지 개선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북부권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치매관리사업을 제공받을 수 있어 아직 개원 후 두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7월 70여 명에 불과했던 이용객이 8월에는 200여명 유박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같은 인기의 비결은 임상심리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6명이 배치돼 치

매조기검진사업, 치매환자 등록 및 상담, 조호물품 배부, 치매치료비 지원 서비스, 워터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사례관리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주 2회 인지증진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예방형 치매관리 사업을 활발히 운영한다. 또한, 노인복지관·합열전통시장 홍보활동을 통해 북부권 어르신들이 치매 조기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진우 익산시 보건소장은 "치매 사업 사각지대에 있던 어르신과 가족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내 치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추석연휴 대비 특별방역·의료 종합대책발표

군산시, 코로나 확진자 신속대응

군산시는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내기 위한 추석 명절 특별방역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명절로 자칫 코로나19 재확산의 분기점이 되지 않도록 분야·시설별 특별방역 대책을 촘촘히 수립한 것이다.

특별방역 종합대책은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신속대응, △추석대비 표적방역 및 캠페인 통한 적극 홍보 등 2개 분야 8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시는 추석연휴 기간 중 확진자 발생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해, △의료상담센터·행정안내센터 24시간 운영, △연휴기간 위스틀 진료기관 및 약국운영 점검 및 홍보, △응급환자 군산시-군산소방서-의료기관 핫라인 구축, △연휴기간 중 코로나19 확진 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시 누리집 및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또, 추석연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감염취약시설(요양원·요양병원 등) 감염병 관리강화 및 점검,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생활방역수칙 안내 및 방역점검 강화, △귀향·귀성객 증가대비 교통시설 방역점검, △캠페인을 통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홍보 등을 추진한다.

시는 추석 연휴기간 중 위스틀 진료

기관 및 당번약국 운영현황, 신속항원검사(RAT)가능 병원 등을 사전에 파악해 시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영준 군산시장은 "시는 추석연휴 기간 중 시민 한 분 한 분 의료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코로나19 방역 대책 추진계획에 맞춰 근무를 차질없이 실시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다할 예정이다"며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시민들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제일 중요하고, 명절전후 의심증상이 있거나 휴가 복귀 전 반드시 자가진단검사 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 미륵사지, 대형 무빙스크린 미디어파사드 3일 진행

익산 미륵사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 30m 대형 무빙스크린에서 펼쳐지는 미디어파사드의 압도적 무대로 서막을 연다.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야간형 축제에 면모와 위용을 드러내 가을 밤하늘을 미륵사지 동탑과 서탑을 잇는 '빛의 향연 미디어파사드', '라이브 미디어 퍼포먼스', '300대의 드론쇼 향연' 등 최첨단 실감 콘텐츠를 자연과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선보인다.

시는 '2022 익산 미륵사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 이달 3일 19시 30분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3일까지 한달간 미륵사지 일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백제의 빛, 희망을 쌓다'를 주제로 4개 테마(역사를 쌓다, 예술을 쌓다, 소망을 쌓다 연계전시) 총 16종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미륵사지 진입로부터 아름다운 설치미술과 경관조명, 다채로운 콘텐츠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메인 콘텐츠인 '시그너처 미디어파사드'는 '탑의 나라, 소망을 쌓다'를

주제로 처음으로 동·서탑을 포함한 130m의 빈 공간을 길이 60m, 높이10m의 대형 무빙스크린으로 채워 압도적 미디어파사드를 연출할 예정이다.

'라이브 미디어퍼포먼스'는 '미륵의 땅, 천년의 시간'을 주제로 대형 무빙스크린 앞에서 펼쳐지는 융복합 공연으로 미륵사 창건과 재건의 역사 그리고 동시대의 시간 속에 숨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미디어파사드와 함께 몰라보듯 연출하여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어업인 면세유 인상액 보조금 지원

군산시가 유가상승에 따른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업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10억 1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1일부터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용했던 4개월의 어업용면세유 구입비 중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내수면 어업 허가어선, 어장·양식장 관리선, 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신청지는 어업용 면세유 판매 지정기관인 군산시수협을 경유해 9월 한 달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 농기계용 면세유 보조금 긴급 투입

군산시는 최근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인정 지원사업에 9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시는 총 사업비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면세유 사용 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해 사용한 면세유를 3~6월 기준 (리터당 경유 322원, 휘발유 276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협에서 면세유 카드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이 신청 가능하고 사업신청서와 면세유 배정량 및 사용량 확인서를 본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농업을 면세유 가격인정지원사업이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군산시의 안정적인 식량 생산기반에 이바지하는 기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